

近代國語學의 形成에 관련된 國語觀*

— 大韓帝國 時期를 중심으로 —

李 秉 根

- | | |
|------------------|-----------------|
| 1. 머리말 | 3. 國語와 國文과의 관계 |
| 2. ‘國語’의 意義 | 4. 國語觀의 實體 |
| 1) 朝鮮時代의 ‘國語’ | 5. 맺음말 |
| 2) 大韓帝國 時期의 ‘國語’ | |

1. 머리말

大韓帝國(1897-1910)이 탄생했던 90년대부터는 朝鮮時代와는 차별있는 國語觀이 등장하였다. 요컨대 朝鮮時代의 國語觀은 正音·正聲思想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大韓帝國 時期의 그것은 愛國啓蒙思想에 입각한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주로 字音이나 字義(朝鮮 中期 이후) 중심의 규범이나 올바른 사용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國語=國文이라는 言文一致에 바탕을 두어서 國權回復을 위한 國語 教育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近代國語學의 形成 過程에 첫발을 내디뎠던 이 시기에는 유별나게 ‘國文, 國語’라는 말과 이에 관한 論說들이 늘어났고 이른바 특히 開化思想에 접한 愛國의 民族主義者들 중 ‘國文’이나 ‘國語’를 國權回復과 관련시키지 않았던 인사는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현재 ‘국어’란 말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풀이되고 있듯이 두 가지의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4)”

①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 나라말·방어(邦語) || 이 책은 이십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② 우리 나라의 언어.

즉 ①은 ‘국가·국민의 언어’를 개별 언어로 부를 때에 쓰이는 개념이고 ②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대내적으로 일컬을 때에 쓰이는 개념이다.¹⁾

그렇다면 大韓帝國期에는 ‘國語’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國語’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으로 쓰였고 ‘國語’의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보았으며 ‘國語’와 ‘國文’ 나아가서 ‘國家(내지는 民族)’와 관련한 理念的 國語觀은 어떤 것이라고 믿었을까. 이러한 문제를 서술하면서 당시의 ‘國語觀’이 무엇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음미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인 셈이다. 이것은 近代國語學의 형성과정을 이해함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의 하나일 것이다.

2. ‘國語’의 意義

1) 朝鮮時代의 ‘國語’

‘國語’란 말은 ‘나라’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나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의 ‘나라’는 또 ‘나라’와 對照的인 관계에 있게 마련이다. 저 유명한 『訓民正音』의 世宗御製序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1) ‘국가의 언어’ 즉 ‘국(가)어’란 용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에 langue national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수도권 Îl de France 중심으로 프랑스의 범국가적인 공동체의 언어로 삼고자 하였다. 이 때 口話語라기보다 文章語(langue littéraire)가 ‘국어’의 바탕이 되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던 것이다. 즉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왕권의 권력지지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제정된 것이 ‘국어’였던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서 中華를 제외한 帝候國이나 그에 상응하는 중앙 지역의 언어를 ‘國語’라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語音’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그 語音을 나타내는 ‘文字’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對照의인 인식 위에서 意思相通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中國語’라 하지 않고 ‘中國’이라 함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世宗의 진술에 이어서 訓民正音의 해설 중 <合字解>에서는

- ① 且國語雖不分輕重。皆得成音
- ② 、一起 | 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 기긔之類

라고 ‘國語’를 두 번 사용하였다. ①은 半舌音에 輕重의 두 音(cf. 舌打音과 舌側音)이 있으나 중국 韻書의 字母에서는 오직 하나로 하였고 또 ‘國語’에서도 비록 輕重을 나누지 않고서도 모두 音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國語’가 앞의 ‘國之語音’과 마찬가지로 對照의으로 쓰였던 셈이다. ②는 ‘기긔’와 같은 重母音이 ‘國語’에는 없으나 아동의 말이나 변방의 시골말에서는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위의 ‘於國語無用’이란 표현대로라면 ‘兒童之言’이나 ‘邊野之語’는 ‘國語’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語’는 ‘兒童之言’이나 ‘邊野之語’를 빼놓은 우리나라말이 되는 셈인데, 그것도 위의 자료에 한정한다면 우리나라 固有語에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①과 ②를 아우르면 결국 『訓民正音』의 國語는 外國語로서의 中國語와는 차이가 있는 對照의인 의미로 쓰였으면서 다시금 아동어나 方言은 포함하지 않는 ‘正音’ 즉 中央語 중심의 規範語나 標準語(?)에 가까운 의미로 그것도 固有語에 한해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²⁾ 이것은 <合字解>의 ‘訣’에서 비록 聲調에 초점을 둔 표현이기는 하나 ‘方言俚語萬不同’과 같이 인식되었던 것이다.³⁾

2)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훈민정음』에서의 ‘국어(國語)’를 “전국가적인 규범성을 띤 민족공통어로서 아이들의 말이나 지방사투리와 구별되는 말”을 이르는 말로 풀이하였다.

조선시대의 중앙어 중심의 표준적·규범적인 개념으로서 ‘國語’를 썼다면 그것은 세종이 받아들인 ‘正音’ 思想과 통하는 것일 듯하다. ‘正音’의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姜信沆(2003), ‘正音’에 대하여.

3) 박지홍(1988) 『국역 訓民正音』에서는 ‘國語’를 ‘우리 서울말’로, 또 ‘方言俚語’를 ‘나라말(서울말과 시골말)’이라 의역하였다.

『東國正韻』의序나 『保間齋集』의 行狀(과 年譜)에 보이는 ‘國語’도 『訓民正音』의 그것과 크게는 다를 바 없는 듯하다. 『東國正韻』의 序에서 ‘牙音’에 속하는 ‘溪母’에 속하는 글자와 소리를 ‘我國’의 語音과 ‘中國’의 그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夫之一音而已

즉 ‘國語’에서는 ‘溪母’가 많이 쓰이나 ‘字音’에는 오직 ‘夫(쾌)’ 한音が 있을 뿐이라고 함으로써 크게는 ‘中國’을 의식하면서 ‘國語’를 漢字音과 구별하였으며 多用溪母라 한 사실로 보아 우리 나라 固有語를 지칭하는 듯이 쓰고 있다.

姜希孟이 엮은 申叔舟의 行狀에

上 以本國音韻 與華語雖殊 其牙舌唇齒喉清濁高下 未嘗不與中國同 列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

즉 ‘本國音韻’이 ‘華語’와 비록 다르지만 그 五音·清濁·聲調를 ‘中國’과 같이 갖추고 ‘列國’이 모두 ‘國音’의 글자를 가지고서 ‘國語’를 적고 있으나 오직 ‘我國’만은 이것이 없어 세종께서 諺文字母 28字를 지었다고 하고 있다. ‘國語’라는 표현은 현재의 우리에게겐 놀랍다. 여기서 ‘國語’는 列國(여러 나라)의 ‘國音’(제 나라의 말소리)을 적는 글자의 대상이 되는 그 나라의 말인 것이다. 한국어로서의 ‘我國之語’ 또는 ‘本國之語’ 즉 自國語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나라(國)+말(語)’이라는 ‘나라’를 전제로 하여 ‘말’을 쓰고 있다.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이 그 말을 적는 ‘글’과 흔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國’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즉 현대적인 ‘國家’를 의미하는지 중국에서 쓰이는 ‘國’ 말하자면 中華를 제외한 帝侯國 또는 이에 상응하는 나라나 그 중앙 지역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시대에 쓰였던 ‘國語’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백두현(2003)에 따르면 『高麗史』 列傳에 등장하는 ‘國語’

4) 중국에서는 春秋列國의 事蹟을 나라별로 기술한 역사서 『國語』 이외에 帝侯國 또는 그 민족의 固有語를 가리키는 ‘國語’는 적어도 唐나라 때부터 이미 써 왔다. ‘國’은 ‘中國’과 같이 大單位로부터 帝侯가 머무는 ‘中央’까지 뜻하는 좁은 개념으로 폭넓게 쓰였다. 그러나 ‘中國語’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를 각각 ‘國語=몽고어’와 ‘國語=고려말’로 쓰였다고 보았다.

15세기의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 『훈민정음』을 해설했던 集賢殿學士들 또는 세종의 사람들이 지녔던 ‘國語’의 개념은 文字 그대로 ‘나라말’같이 ‘國家’를 전제로 한 언어로서 國家와는 상대적인 개념이었으며 그 ‘國語’는 규범적·표준적인 공용어로서 그 언어의 文字와 연결되었던 그런 것이었다. 그것도 固有語에 한정되어 흔히 쓰였다.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國語’의 개념을 조선시대로 넓혀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는 없다. 그나마 드물게 쓰였던 이 ‘國語’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더욱 더 보기가 힘들었던 듯하다.⁵⁾ 특히 大韓帝國期에는 ‘國文’이 크게 쓰이면서 ‘國語’가 다시 돋보이게 되었다.⁶⁾ 그러면 20세기를 전후해서 또 다시 등장한 이 ‘國語’는 어떠한 개념이었을까.

2) 大韓帝國 時期의 ‘國語’

(1) ‘國文’의 등장

1890년대에 ‘我國文言’, ‘自國國文’ 등의 표현과 함께 ‘國文’이란 말이 좀 더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國文’이 있다면 ‘國語’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國語’란 표현은 좀처럼 보이지를 않았다. ‘國語’보다는 ‘國文’이 보다 빨리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조선시대의 관심이 ‘言(語)’보다는 ‘(諺)文’에 더 있었던 전통과 관련이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 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1876년 이후로 開港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國文에 깊은

5) 조선시대는 ‘言(語)’보다는 흔히 ‘(諺)文’에 관심이 컸었다. 이러한 ‘文’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기에는 ‘國文’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6) 1870·80년대에 ‘國語’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다면 당시에 간행된 사전에 이 ‘국어(國語)’라는 단어가 표제어로 선정될 듯한데, 19세기의 對譯辭典들에서조차 이 ‘國語’란 단어가 표제어로 등재된 사전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국어’라는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성의숙이 설립되었을 때에 ‘국어과’와 ‘일어과’를 정하여 가르쳤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1898).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국어(國語)’는 찾을 수 없으며, 『대한매일신문』에는 “국문과 국어(나라방언)”와 국가어로서의 ‘국어’의 개념에 평행시킨 “국어학”이란 표현 정도가 쓰였다(1907). 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막상 이를 확인하는 현재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朝鮮語辭典』(1920)에야 “國語=一個國の語”로 풀이되었다.

관심을 보였고 開化思想家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國文의 사용과 보급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있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름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비하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듬에 국문을 잘 아는 사름이 드물미라

(『독립신문』(1895) 논설, 제1권 제1호)

또 생각건디 중국 글쓰로는 모든 사름이 썰니 알며 널리 볼수가 없고 대한 언문은 본국 글쓰썰디러 선비와 빅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나 슬프다 대한 언문이 중국 글쓰에 비교하야 크게 요긴한것만은 사름들이 긴흔줄노 아지 아니하고 도로혀 업수이 녀이니 엇지 익설지 아니하리오

(헐벗 『四民必知』(1895) 서문)

태서. 각국. 사름과. 일. 청. 사름들이. 조선에. 오면. 위선. 선싱을. 구하여. 국문을. 비호기로. 반절. 리치를. 무르면. 디답지. 못흔즉. 각국. 사름들이. 말하디. 너희. 나라. 말이. 장단이. 잇시니. 언문에도. 그. 구별이. 잇서야. 올홀거신디. 글과. 말이. 꺫지. 못흔니. 가히. 우습도다하고. 멸시하니. 그러흔. 슈치가. 어디. 잇시리오. ……또. 즈쥬. 독립의. 리치로말하야도. 놉의. 나라. 글문. 위쥬. 흘거서. 아니오. ……문명의. 데일. 요긴한거슨. 국문이디. ……

(리봉운 『국문경리』(1897) 서문)

이렇게 ‘國文’의 사용을 강조한 것은 高宗의 언어정책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894년 11월 21일에 발표한 勅令 제1호는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와 같이 법률·칙령은 모두 國文으로 바탕을 삼고 漢譯을 붙이거나 國漢文을 혼용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미 그 해 7월에 외국 국명·지명·인명을 國文으로 번역할 것(議定存案 第一)과 國文綴字, 國文翻譯, 教科書編輯을 學務衙門編輯局이 담당하게 했던 것이다. 漢文이나 吏讀文을 주로 사용해 왔던 조선시대가 中國에 매여 있던 것과는 달리 갑오개혁 이후에는 1894년 12월 12일에

高宗이 宗廟에 誓告한 <大君主 展謁宗廟誓告文>에서

첫지는 청국에붓치는싱각을끈어바리고확실히즈주독립호는그업을세우논일

— 割斷附依淸國慮念確建自主獨立基礎

— 淸國에附依호는慮念을割斷호고自主獨立호는基礎를確建호미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이 高宗이 지향했던 自主獨立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誓告文을 올린 이튿날인 12월 13일에는 고종이 다음과 같은 綸音까지 내렸던 것이다.

슬프다.너의빅성이.실로오작.나라의근본이니.즈주홈도.오작.빅성이여.독립홈도.오작.빅성이라.인군이.비록.즈주코져호나.빅성이.아니면.어디의지호며.나라가.비록.독립코져호나.빅성이.아니면.누로.더브러호리오.

이러한 自主獨立의 외침과 國文 사용의 강조 속에서 ‘國文’이란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비화”(위의 『독립신문』 논설)라든가 “조선서는 조선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위의 『독립신문』 논설)라든가 “(어떤 한) 나라의 글”이라는 形態論的 定義로 풀이될 수 있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마치 ‘國語=一國의 言語’에 평행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本國國文, 我國國文’이라든가 ‘본국글씨, 본국글, 우리나라글’ 등등의 표현들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文脈上 ‘國文’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諺文(훈민정음)’이라는 개념과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다.

(2) ‘國語’의 개념

이렇듯 ‘國文’이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던 데에 비해서 ‘國語’는 상대적으로 덜 쓰였다. ‘國語’가 ‘朝鮮語, 조선말’ 등 이외에 제법 많이 쓰였던 시기는 甲午改革 10년 이후 정도의, 대체로 大韓帝國 時期 이후의 일이다. 예컨대 李能和의 <國文一定意見>(1906)에는 ‘我國語’, ‘我國國語’, ‘我國之語’, ‘一國之言語’ 등이라든가 “輯述國語規範一冊港入國語一科於小學校事”와 같이 ‘國語’가 쓰였는데, 바로 ‘一國之言語’를 뜻하는 것이었던 듯하다. 물론 ‘國語’를 가르치는 한 과목으로서의 ‘國語’도 포함하고 있다.

甲午改革 이후로 조선시대와는 달리 文法書들이 출현하였는데,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 『國語文典音學』(1908), 『國語文法』(1910) 등과, 兪吉濬의 『朝鮮文典』(?), 『大韓文典』(1909), 崔光玉의 『大韓文典』(1908), 金熙祥의 『初等國語語典』(1909) 등과 맞춤법 관련인 韓承崙의 『國語綴字捷徑』(1908) 등이 잘 알려져 있다. 1910년 庚戌國恥 이후 특히 그 해 10월 1일로 朝鮮總督府 설치 이후로는 ‘國語’가 日本語를 지칭하도록 되어 책이름에 ‘國語’를 넣을 수 없었고 光復 이후에야 다시금 ‘國語’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든 大韓帝國期の 문법서를 보면 金熙祥 이외에 ‘國語’를 즐겨 쓴 경우는 周詩經이었다. 그만큼 周詩經은 ‘國語’에 대한 執念이 강하였던 것이다. 우선 이 시기에 ‘國語’란 무엇이었을까.

崔光玉의 『大韓文典』(1908)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兪吉濬의 『朝鮮文典』 제4차 稿本과 유사하다. 그러기에 ‘借印’을 했단다가(cf. 安廓) ‘표절’했다든가(cf. 金敏洙) 하는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런데도 兪吉濬의 文法書들 어디에도 없는 ‘國語’의 개념이 崔光玉의 문법서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國語’라는 제목 아래 서술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世界各國에 各異한 言語가 有하니 此를 其國國語라 稱호는 지라 假令 英國의 言語는 英國國語이오 獨國의 言語는 獨國國語이니 如是我國의 言語는 我國國語라 國語가 國民으로 關係됨이 甚大호니 若國語가 一定치 못호면 國民의 團合心이 缺乏호고 國語가 自由치 못호면 國民의 自由性을 損式호는 지니 支那와 露國等國으로 鑑戒를 作호지이다

즉 國家를 단위로 하여 각각의 國家가 지닌 그 나름대로의 차이있는 언어를 그 國家의 ‘國語’라 定義함으로써 우리 나라 언어가 곧 우리 나라의 ‘國語’라 한 것이다. 즉 ‘國語’의 형태론적 정의에 평행되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各國의 言語가 各異하다면 결국 國語란 各國 또는 개별언어로서의 一國의 言語가 되는 셈이다. 이때에는 전통적인 帝侯國 내지 그 中央語의 언어라는 의미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근대적인 개념의 國家 내지 國民(人民)과 관계됨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후술할 바와 같이 당시에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국어학자라고는 할 수 없는 崔光玉이 자신만의 定義를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國語’의 정의가 있다. 宋憲奭 輯述의 『初等自解 日語文典』(1909)에서는 ‘國語’를

言語는 人의 思想을 表호는 聲音이라 世界列邦에 言相不同호야 各以該國語로 國語라 稱호니 例호건디 大韓의 言語는 大韓國語요 英國의 言語는 英國國語요 支那의 言語는 支那國語라 云호고 如호니라

와 같이 정의하여 崔光玉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데 宋憲奭은 당시에 드물게도 현대언어학에서의 개념과 유사하게 ‘方言’을

一國中에도 或一地方에 만用호는 言語가 有호니 此를 土地方言이라 云호고 例호건디 我國全羅道에서 用호는 言語는 全羅道方言이요 慶尙道에서 用호는 言語는 慶尙道方言이라 云호고 如호니라

라 하였고, 또 ‘古語’에 대해서도

古語라 云호는 古時代에 用호고 今時代에 用호는 不用호는 語를 云호고 例호건디 言語는 始終이 不一호아 時를 隨호아 變化호니 例호건디 我國新羅時方言이 今日吾人의 用호는 言과 不同호고 日本萬葉集과 源氏物語等에 用호는 語가 現今日本人口語와 大異호고 如호니라

라 하면서 이들 方言과 古語를 ‘國家語’로서의 ‘國語’와는 구별하면서도 다시 ‘國語’에 포함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宋憲奭의 ‘國語’에 대한 개념은 비록 애매한 점은 있으나 후술할 바와 같은 애국계몽적인 언어교육의 도구로서의 규범적인 ‘國語’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俞吉濬은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문법서를 저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朝鮮文典』의 稿本들로 알려진 것들이다. 집필 연도가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1895(?)년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大韓文典』(1909) 이전 또는 연대가 알려진 『朝鮮文典』(1905)의 이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cf. 歷代韓國文法大系[101]). 『朝鮮文典』은 『大韓文典』과는 달리 서문이 실려 있다.

吾人이 既此 一 種 言 語 를 自 有 ㅎ 고 又 此 一 種 文 字 를 自 有 ㅎ 則 亦 其 應 用 ㅎ 는 一 種 文 典 이 不 有 ㅎ 면 不 可 ㅎ 도 다 夫 言 語 가 既 有 ㅎ 以 上 은 自 然 其 文 典 이 亦 有 ㅎ 거 늘 吾 人 이 先 民 이 來 로 漢 土 의 文 字 를 借 用 ㅎ 야 本 國 의 言 語 와 混 合 ㅎ 디 國 語 가 漢 文 의 影 響 을 受 ㅎ 야 言 語 의 獨 立 을 幾 失 ㅎ 니 語 法 의 變 化 는 不 起 ㅎ 故 로 文 典 은 別 立 ㅎ 門 戶 를 保 守 ㅎ 야 外 來 文 字 의 侵 蝕 을 不 被 ㅎ 則 若 吾 文 典 을 著 ㅎ 야 卽 朝 鮮 의 固 有 言 語 를 表 出 ㅎ 進 디 國 文 漢 文 의 區 別 이 自 劃 ㅎ 분 더 러 漢 文 이 國 文 의 範 圍 內 에 入 ㅎ 야 我 의 利 用 될 ㅅ 람 이 니

<朝鮮文典序>

여기서 보면 一 種 의 言 語 로 서 自 有 한 本 國 의 言 語 가 곧 國 語 가 된 다. 그리 고 基 本 的 으 로 는 一 種 言 語 (國 語) = 一 種 文 字 (國 文) = 一 種 文 典 과 같 이 평 행 되 는 것 으 로 비 록 漢 文 이 들 어 와 언 어 의 독 립 을 얼 마 간 잃 지 만 語 法 의 변 화 는 없 이 固 有 言 語 를 表 出 할 수 있 다 고 본 셈 이 다. 그리 하 여 李 能 和 (1906) 의 ‘一 國 之 言 語 ’ 나 崔 光 玉 (1908) 의 ‘(我 國) 國 語 ’ 의 개 념 과 크 게 는 다 른 바 가 없 을 듯 하 다. 이는 “言 語 文 字 는 邦 國 種 族 을 隨 ㅎ 야 各 異 ㅎ 則 ” 과 같 이 言 文 의 各 異 性 을 표 현 할 수 있 었 던 것 이 며 “吾 人 의 文 字 는 卽 吾 國 文 의 簡 易 精 妙 ㅎ 狀 體 內 [俗 所 謂 諺 文 이 는 래] ” 고 하 여 결 국 基 本 的 으 로 는 高 유 어 · 高 유 문 자 중 심 의 言 文 一 致 의 생 각 을 깔 고 있 었 다 할 것 이 다.

한 편 國 家 機 關 으 로 서 學 部 에 설 립 된 國 文 研 究 所 에 서 는 ‘國 語 ’ 를 어 지 사 용 했 는 가. 최 종 보 고 서 인 ‘國 文 研 究 所 報 告 書 ’ 에 ‘國 語 ’ 가 쓰 인 바 없 고 그 구 체 적 인 내 용 인 ‘國 文 研 究 議 定 案 ’ 에 서 는 많 이 보 이 는 바, 거 기 서 다 음 과 같 은 몇 몇 用 例 들 을 추 름 수 있 다.

- ① …… 箕子가 支那人으로 本邦에 來王ㅎ시니 漢文이 隨入ㅎ야 政令事爲에 自然히 需用ㅎ지라 此로 因ㅎ야 言文이 二致ㅎ고 又 漢文이 國語에 混用된 者가 多ㅎ며 (一 淵源)
- ② 中聲中、字의 發音은 …… 其音이 一字와 近似ㅎ디 國語音으로는 成音기 難ㅎ거늘 (一 發音)
- ③ 國語音에는 如此ㅎ 細別이 無ㅎ고 (一 發音)
- ④ 字體及發音의 沿革은 或 國語音에 無함을 因ㅎ며 (一 發音)
- ⑤ 但 ㅎ字는 國語音에 ㅎ字로만 用ㅎ야도 不可함이 無ㅎ니 (三)
- ⑥ 訓民正音例義와 國語音에 違反ㅎ얏으니 (五)
- ⑦ 平上去入의 四聲은 國語音에 必要가 無ㅎ니 不用함이 可ㅎ고 (七)

여기서 ①의 경우는 이미 여러 군데서 언급된 바 있는 것으로 漢文과 ‘國語’를 대조한 결과로 인식된 것인데 言文二致라는 표현대로 ‘(漢)文’과 ‘(國)語’가 혼동된 것이다. 言文一致라는 의식이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對照的 觀點에서 ‘國語’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다. ②~⑦까지는 모두 ‘國語音’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國語音’은 대체로 國文研究所 당시의 것일 듯하다. ‘國語’는 ⑦에서 對照的으로 쓰인 바와 같이 ‘我國之語’로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魚允迪의 國文研究에는 ‘日本國語音’ 등의 표현도 쓰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假借漢字音以寫國語如萬葉集所載歌謠則或用字音或用字義是謂萬葉假名……

에서와 같이 漢字에 대비한 일본어를 ‘國語’로 부르고 있으며 新羅鄉歌나 薛聰吏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國語’를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魚允迪은 ‘一國의 言語’를 ‘國語’라 부르고 있지 ‘國語’가 곧 韓國語를 뜻한 것은 아니었다. 李能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日文’을 언급하는 중에

應神天皇十六年頃에 國中上下 一般이 漢字를 傳習採用하야 國字를 遂成하야 自是로 國語를 記寫하논 要件가 되니라

……

또 其草體로 自하야 一層 簡單한 『平假名』이 出來하얏으며 又其楷體一部로 自하야 『片假名』을 製作하야 共히 國語를 記寫하논 要件가 된지라

라 하여 여기서 말하는 ‘國語’는 곧 ‘日本國語’인 것이다. 말하자면 李能和에게는 ‘國語’가 ‘어느 한 나라의 말’ 즉 ‘一國의 言語’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면서도

全國內各學校에서國語教授를利用하야此를改正함

에서와 같이 우리의 경우를 언급할 때에는 ‘國語=韓國語’로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참석하였던 周時經은 그의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혼동은 보이지 않는다.

世宗朝계서國音을依호여國文을作호시니國文의發音이국國語의發音이라

라 하여 言文一致의 인식이 있었으며 “漢文音을仍用홈이라도朝鮮音에順호대
로近호게만發호매漢文의東音이自是로始出호지라. 故로漢字의音을由來로國語
에混用홈이不少호나本國音은變치안호지라”에서처럼 漢文音≠朝鮮音처럼 대조
적인 인식이 있을 때에는 각기 구별해서 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訓民正音』의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에 대하여

我國特性의語音은支那의音과不同호여支那의文字가國語와流通치못호다호심이요
此를憂慮호사國音을依호여國文을新制호시니國文의發音은국國語의發音이요國音의發
音은我國特性의發音이라

라고 했던 것이다. 대조적이면서도 固有語로서의 國語를 뜻했던 것이다. 때로
本國之音輕而淺中國之音重而深이라고 대조시키기도 하였다. ‘國語字, 國語音,
國語韻’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國語音’에 대해서는 때로 ‘國音, 我音’이라
고도 하면서 言文一致의 생각 때문에 “國文의音은국國語音”이라 했다. 이것은
國文의 창제가 國語에 바탕을 둔 ‘記音文字’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두 固有
音を 나타낸 듯한데, 固有性에 대한 인식의 강조는 지나칠 정도이다.

我國에自古로本國노래가固有호고樂器가亦備호여다스림이라호는音調은高低를調
和홈에用호니此는我國의律이라

周時經이 ‘國語’를 언급할 때에 漢字語를 배제하면서 固有語에 치우친 생각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國語文法』 35면).

기의갈래九個名稱은國語로作함이니或은줄임으로혹은定함이라.漢字로作하면그文
字의義로만解得하라고하는習慣이有하여그定義를言하지안이하면誤解하기易하니國語
로作하든지漢字로用하든지定義를舉하기는일반인데漢字로定하기는國語로定하기보다
未便하며……如一하게하노라고國語로作하거니와如何하든지國語에國語를用함이가하
지안이하리오

이리하여 그는 ‘기’ 갈래의 명칭을 한자어가 아닌 ‘국어’로 ‘임, 엇, 움, 겐, 잇, 언, 억, 놀, 꾀’와 같이 지었고 이전의 國漢文混用體에서 차츰 國文體로 바꾸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10년 이후에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책 이름은 『國語文法』, 『朝鮮語文法』 식으로 한자로 붙였다가 <한나라말>(1913), <말의소리>(1914) 같은 국문의 제목을 붙인 것은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야였다. 역시 주시경도 1910년 朝鮮總督府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이래로는 ‘國語’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기인 1910년까지 쓰인 ‘國語’의 개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대체로 ‘國語’란 “國(나라)#(어)#語(말)”의 합성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론적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라(어)말’ 정도의 개념이었다. 崔光玉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各國의 各異한 언어가 곧 그 國家의 國語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1920)에서는 ‘국어(國語)’를 “一個國의語”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우리말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我國語, 我國之語, 我韓之言, 本國之言’ 등과 같은 표현 외에 그대로 ‘국어(國文)’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國語’에 앞서 많이 쓰인 ‘國文’의 경우에 평행되는 것이었다.

끝으로 國語가 國家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것 일텐데, 그렇다면 國語는 國家의 公用語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언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國語科’라는 말이나 교과서에서 쓰인 ‘國語’라는 말을 보면 한 국가의 공용어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범적이고 통일적인 ‘國語’의 質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의 ‘國語’는 宋憲奭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어나 방언을 ‘國語’로 인정하지 않은 규범어 또는 표준어를 뜻했던 『訓民正音』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 물론 ‘國語’가 帝候國의 언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을 경우에 그렇다.

3. 國語와 國文과의 관계

‘國語’라는 개념이 비교·대조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했듯이 ‘國

文’ 또한 그러하다.

조선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쁜 것이 무엇이고 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돌지는 이 글이 조선글이니 조선인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 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 보기가 쉬홀 터이라

<독립신문> 논설 데일호(1896)

즉 漢文과 비교·대조되는 ‘조선글’이 곧 ‘조선국문’인 셈이어서 “국문이란 거슨 조선글이요”라고 한 것처럼 ‘조선’이란 국가를 전제로 ‘국문=언문=조선글=본국글’과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도 썼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國文’은 ‘國語’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알아 보아야 할 터인데, 이에 앞서 ‘말(言語)’과 ‘글(文)’에 관한 일반적인 당시의 생각부터 알아 보자. 가장 대표적인 몇몇 문헌들에서 보도록 한다. 우선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1906)에는 ‘말’과 ‘글’을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문 말은 무엇이뇨
 답 뜻을 표하는 것이니이다
 이문 말이 쓸디가 무엇이뇨
 답 인류가 서로 인연되어 사는 고로 그 뜻을 서로 통하여야 할 것인디 말은 그 뜻을 통하느디 쓰는 것이니이다

륙문 글은 무엇이뇨
 답 글은 말을 표하는 그림이니이다

칠문 글로 말을 달은 사람에게 엇더케 통할 수 잇느뇨
 답 글은 표니 이 표를 남에게 들어내어 그 눈에 빗쳐어 보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이 깨듯고 알느이다 그런고로 글로 뜻을 통하나 소리로 뜻을 통하나 다 일반이니 글은 눈으로 듯는 말이라 홀 만하고 말은 귀로 보는 글이라 홀 만하니이다

즉 ‘말’과 ‘글’은 소리로 뜻을 통하나 글로 통하나 일반이라 하여 ‘말’은 곧 ‘글’과 관련시켜 볼 때에 ‘말소리’를 이르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

하여 다시

음을 表하는 文字라도 文字가 音を 盡히지 못홀지언정 音이 文字를 盡히지 못
 흠은 無하고 文字가 音에 達홀지언정 音이 文字에 達함이 無하고 文字가 音에 不
 足홀지언정 音은 文字에 不足함이 無하니 文字가 音에 外흔즉 文字가 안이니라
 『國語文典音學』(1908) 6-7면

라 하여 音과 文字는 결과로는 동일한 것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바
 꾸어 말할 때에

國文은 國語의 影子요 國語의 寫眞이라 影子가 其體와 不同하면 其體의 影子가
 안이요 寫眞이 其形과 不同하면 其形의 寫眞이 안이라
 『國語文典音學』(1908) 101면

와 같게 결과로 國語=國文이 되는 셈이다. ‘言語’와 ‘文字’와의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일찍부터 일반화되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과 같은 申海永의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1897)에서의 언급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주
 고 있다.

言語와 文字는 兩個種이 아니라 頭上에 太陽을 指하고 其理를 會得함은 智識이
 오 其理를 說明함은 言語요 其理를 記載함은 文字니 言語文字는 一塊物中分子性
 質이로다

즉 ‘言語’와 ‘文字’는 두 종류가 아니라 한 덩이로서 같은 분자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 보고 있다. 나아가서 주시경은 “國語대로 國文을 記用”한다는 표현도
 가능한데, 이 때 ‘국어’를 “그 말과 그 소리에 울음을 가리어 쓰노라” 하면서
 (『國語文法』 117면) 國文의 法은 “어음과 본테와 법식과 련독(連讀)함”이 울
 아야 한다는 것이다(『대한국어문법』 삼십팔). 말하자면 한 국가의 모든 언어
 가 ‘國語’가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범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 당시에 흔히 생각했던 ‘國文之法=國文法’인 것이다. ‘文典’도 마찬가지로
 俞吉濬이 “文典은 人의 思想을 書出하는 法을 教하는 者”(『大韓文
 典』)라 정의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의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주시경 <한나라말>(1910))라고 하여 文字를 言語에 앞세우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흔히 ‘언어’를 정의할 때에는 “言語라 함은 人의 思想을 表하는 聲音이라云하니 思想을 表하는 方法은 數多하니 身을 振하며 手를 容하며 顔을 形하는 等 類가 是라 그러나 此種中 聲音으로 表音하는 거슨 普通 言語를 稱함이라”와 같이 뜻을 나타내는 말소리에 초점을 둬으로써 sound-meaning correspond라는 근대적인 개념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두 방법 즉 ‘언어’와 ‘문자’를 ‘天然聲音’과 ‘人爲文字’라 표현하기도 하였다(兪吉濬 『朝鮮文典, 大韓文典』 참조).

그러면 ‘文字’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이라 보았을까. 바로 文字에는 表音文字와 表意文字가 있고 이 중에서 表音文字가 表意文字보다 진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저 글은 두 가지가 있스니 하나흔 형상을 표하는 글이오 하나흔 말을 표하는 글이라 대개로만 말하면 형상을 표하는 글은 넷씩 덜 열린 시대에 쓰던 글이오 말을 표하는 글은 근려 열린 시대에 쓰는 글이라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

이 글을 통해서 보면 ‘형상을 표하는 글’ 즉 表意文字는 ‘덜 열린 시대’ 즉 유길준의 표현을 빌리면 ‘半開化’ 시대에 쓰던 글이고 ‘말을 표하는 글’ 즉 表音文字는 ‘열린 시대’ 즉 ‘開化’ 시대에 쓰는 글로 보아 進化的인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表音文字는 自然한 音의 十餘種 되는 것이 表로만 隨時轉換하여 自國의 常用하는 言語를 記하는 것인 故로 學習하기가 至易하고 此文을 讀하면 곳 言語하는 故로 文意를 解得하기도 言語를 聞함과 如하고 作文하기도 言語하기와 如하니 表音文字가 象形文字보담 便利함이 幾倍나 되는지 比較할 수 업소다

주시경 <必尙自國文言>(1907)

‘記音文字’ 곧 表音文字가 배우기·읽기·듣기·쓰기에 ‘象形文字’ 곧 表意文字보다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성의 강조는 결국 姜筮의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說>(1907) 등 많은 경우에 表音文字인 國文=諺文을 가르

치고 사용할 것을 주장하게 하였다. 이러한 國文專用 또는 國文純用의 주장은 다음에 언급하게 될 國語觀 내지는 開化文明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4. 國語觀의 實體

1894년 甲午에 중국(당시는 淸)에 附依함을 끊어버리고 自主獨立을 선언하면서 自主獨立의 기초를 세우고 1897년 大韓帝國이 출범하면서는 더욱 더 獨立思想을 구체적으로 펼친 論說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言文思想이 특히 그러하였다.

『독립신문』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창간호에서부터 적극적인 논설을 펼쳤는데, 그 논설의 강조점의 하나가 백성이 나라의 근본으로 자주함도 오직 백성이요 독립함도 오직 백성이라는, 곧 자주독립의 근본이 백성=국민이라는 것이고,⁷⁾ 나아가서 외래문자인 漢文 대신 國文을 남녀노소, 상하귀천 없이 백성 모두가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國文 중심의 근대적인 평등 사상을 반영한 듯한데, 다만 당시의 정치체제인 전근대적인 君主制를 전제하기도 했던 것이다. 우선 『독립신문』은 위의 논설에서

우리는 조선 대군주 폐하와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을 위하는 사람드린고로 편당잇는 의논이든지 혼쑤만 상각코흐는 말은 우리 신문향에 업실터이음 …… 논설 낫치기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의 송덕호고 만세를 부르느이다

와 같이 표현하였고, 리봉운도 그의 『국문정리』(1897)의 서문에서

나라 위호기는 려항의 선비는 조정의 공경이느 肅심은 호ㄹ지기로 진경을 말호느니 대대 각국 사름은 본국 글을 숭상호야 학교를 설립호고 학습호야 국경과 미스를 못홀 일이 업시호야 국부민강호것마는 조선 사름은 늬의 나라 글민 숭상호고 본국글은 아췌 리치를 알지못호니 절통호지라
와 같이 ‘肅심’을 언급하였다. 주시경도 『대한국어문법』(1906)의 발문에서

7) 이러한 생각은 이미 1894년 12월 13일에 고종이 ‘신하’와 ‘백성’에게 내린 綸音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cf. 2.2.1).

高明하신 이들은 일로 좇아 우리 文言을 研究하고 修正하여 活敏한 機械를 만
들어 天然的 便利한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東半島 우리 人民에게 여러 學文을
잘 가르쳐 光明富國이 우리 社會에 充滿하여 外勢가 侵犯할 곳이 없게 하고 또 우
리 皇上의 德化와 나라의 威權이 世界에 넘치게까지 하기를 간절이 비는이다

에서처럼 ‘皇上’을 언급하였는데, 이미 그의 <국문론>(1897)에서

대군주 폐하께서 남의 나라 님군과 갖치 튼튼 하시게 보호 하여 드리며 또 우
리 나라의 부강한 위엄과 문명한 명예가 세계에 빛나게 하느거시 못당 하도다

와 같이 언급했던 것이다. 李商在도 崔光玉의 『大韓文典』(1908)의 서문에서

上帝降衷之思이 將其大顯于我韓일시 余於是有感하여 不揣無拙하고 略弁數言하
노라

에서 ‘上帝’를 언급하고 있다. 高宗(皇帝) 아래에서의 國文의 사용과 이를 위
한 교육 및 그 국문의 정리 등을 주장했던 시기가 開港期 좁게는 自主獨立國
을 선언한 甲午改革 이후였던 것이다.

그러면 국문 사용(國文專主, 以國文爲本 또는 國漢文混用)의 주장들은 당시
의 사회에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은 다음과 같은 申海永의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1897)를 통해 알
수 있다.

今에我朝鮮이獨立後에政府도一新하여社會萬事萬物을去舊就新함에國民의新面目
을爲하여國文專用的訓令을頒布할條에各各多少의波瀾을激하여一時의動搖를催하고今
에至하기家國實際에何를標準하여方針을立호지新舊間에迷하여一定方向을不整하느
者 | 多多하도다

당시의 논설들에서 주장한 국문사용과 高宗의 언어정책은 이와 같은 과란을
겪으면서 바로 위의 인용문과 같은 정도의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혼동 속에서 『독립신문』은 창간호 논설에서 국문전용의 이유를 평
등사상에 입각하여 주창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그리하면 이 신문은 또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너의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일을 서로 알터이음 ……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째여 쓴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셰이 알아 보게 흠이라 ……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니지 스경을 알게 하라는 뜻이니 남녀 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결너 몇달만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긴걸 미리 아노라

즉 국민 누구나 국내의 물정·사정을 알게 하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 『독립신문』의 일인데, 그것은 자주독립국으로 출발한 ‘조선’을 위한 것으로 결국 愛國啓蒙의인 역할을 『독립신문』이 맡으려 했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로 國語·國文의 정리와 정리·통일된 그것의 사용이 愛國과 관련된다는 생각은 근대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듯하다. 잘 알려진 한 예로 崔光玉의 『大韓文典』(1908)에 쓴 月南 李商在의 서문의 언급을 들 수 있다.

我國의 言語는 我國國語라 國語가 國民으로 關係됨이 甚大하니 若國語가 一定 ち 못하면 國民의 團合心이 缺乏하고 國語가 自由치 못하면 國民의 自由性을 損失 ㅎ느니 支那와 露國 等國으로 鑑戒를 作할지이다

즉 ‘自由性’을 잃지 않고서 일정하게 된 ‘國語’가 곧 ‘國民의 團合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인식된 國語로 國民을 教育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학문을 세우려는 愛國啓蒙思想이 강조되곤 하였던 것이 당시의 開化思想家들이었던 것이다.

특히 周時經은 일찍이 그리고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대한국어문법』(1906)의 발문에서 ‘社會’를 어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社會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通하고 그 힘을 서로 聯하여 그 生活을 經營 하고 保存하기애 서로 依賴하는 因緣의 한 團體라 말과 글이 업스면 엇지 그 뜻을 서로 通하여 그 뜻을 서로 通치 못하면 엇지 그 人民이 서로 聯하여 이런 社會가 成樣되리요 이럼으로 말과 글은 한 社會가 組織되는 根本이요 經營의 意思를 發表

허어 그 人民을 聯絡케 하고 動作케 하는 機關이라

즉 어문이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적 기능 때문에 사회 조직의 근본이고 동작 기관이 되는데 그 어문에 의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되는 네트워크의 단체가 곧 ‘社會’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는 어문(말과 글)과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위의 인용문에 이어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전개하였다.

이 機關을 잘 修理하여 精練하면 그 動作도 敏活케 할 것이요 修理치 안이허어 魯鈍하면 그 動作도 窒礙케 하니 이런 機關을 다스리지 안이르고야 어찌 그 社會를 鼓振하여 發達케 하리오 …… 이런즉 人民을 가르쳐 그 社會를 保存하며 發達케 하고자 하는 이야 그 말과 글을 닦지 안이르고 엇지 되기를 바라리오

즉 ‘社會’의 보존·발달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성쇠에 언어의 修理 즉 ‘理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社會’는 ‘國家’와 통하는 개념이다. 주시경의 이러한 생각은 <必尙自國文言>(1907)의 ‘必修自國之文言’에서도 언급하였는데, 그의 생각이 『國語文法』(1910)의 서문에서는

此性(言語)이無하면體가有하여도其體가안이요基가有하여도其基가안이니其國家의盛衰도言語의盛衰에在하고國家의存否도言語의存否에在한지라는이로古今天下列國이各各自國의言語를尊崇하며其言을記하여其文을各制함이다此를爲함이라

와 같이 압축되었다. 그러면 주시경은 왜 언어가 국가의 자주독립이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을까. 이는 그 나름대로의 논변이 있었던 것이다.

宇宙自然의理로地球가成하매其面이水陸으로分하고陸面은江海山岳沙漠으로各區域을界하고人種도此를隨하여區區不同하며그言語도各異하니此는天이其域을各設하여一境의地에一種의人을産하고一種의人에一種의言을發하게함이라是以로天이命한性を從하여其域에其種이居하기宜하며其種이其言을言하기適하여天然의社會로國家을成하여獨立이各定하니其域은獨立의基요其種은獨立의體요其言은獨立의性이라

이 『國語文法』의 서문에 나타난 생각은 그의 이전의 글들에도 특히 『國語文典

音學』(1908)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서술이 있었던 것이었다.⁸⁾ 요컨대 (區)域, (人)種 및 言(語)의 세 요소로 ‘天然의 社會’가 이루어진 것이 ‘國家’라는 것이고 자연 ‘國家’는 ‘區區不同’하게 이루어져 ‘各異’하게 되고 그 자체로 獨立國이 된다는 것이다. 다분히 전통적인 ‘天, 地, 人’의 사상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언어가 발생하여 역시 各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愼鏞厦(1977)에서는 天=민족의 소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로 ① 域=地域共同體, ② 種=血緣共同體, ③ 言=言語共同體로 보고 결국 社會 내지 國家는 이 세 공동체의 삼위일체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주시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국가들이 각각 다르고 절대적으로는 국가들이 각각 독립할 수밖에 없어서 이 논리에 따라 다시금 ① 域=獨立의 基, ② 種=獨立의 體, ③ 言=獨立의 性이라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必尙自國文言>의 ‘我國文言’에서는

我國言語는 太古에 我半島가 初關하고 人種이 祖産할 時부터 此半島區域의 稟

8) 예컨대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또 이디구샹 룩디가 텃연으로 구획되여 그 구연안에 사는 혼혈기 인종이 그 풍토의 품부흔 토음에 덕당흔 말을 지어쓰고 또 그말 음의 덕당흔 글을 지어 쓰는 거시니 이럼으로 혼 나라에 특별흔 말과 글이 있는 거슨 곳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텃연으로 혼목 즈쥬국 되는 표요 그 말과 글을 쓰는 인민은 곳 그 나라에 속혀 혼 단테 되는 표라

그리고 <必尙自國文言>(1907)을 거쳐 『國語文典音學』(1908)에는 <自國文言> 속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浩湯無極히여上下中外가업는 지宇宙에一이存히여四方에充滿히니生滅과始終이無히지라其間에無數히物體가有히니다此로從히며成히고또모든物體가各各此로從히여命히性이有히지라

此는萬有의源이요萬有의主니라上帝라理라홀이다此를謂홀이라

吾人이寄息히는地球도天體の一이라其面이水陸으로分히여水는五大洋을成히고陸은六大洲로劃히고洲마다또區域이分히여人種이生存히는지라

人種도此陸의境界을從히여洲洲不同히고區區又不同히며各人種의言語도此를依히여洲에大分히고區에又分히여各自不同히니此는天이其域에其種을命히고其種에其言을命히여一境의地에一種의人을産히고一種의人에一種의言을發케홀이라

是以로天이命히性을從히여其域에其種이居히기宜히며其種이其言을言히기適히여天然의社會로國家를成히여獨立이各定히니其域은獨立의基요其種은獨立의體요其言은獨立의性이라

賦^{ᄃᆞ} 時性으로 自然發音되어 繼傳^{ᄃᆞ}는 것

이라고 하여 ‘天’과 ‘域, 種, 言’의 3가지 요소를 다 포함시켰던 것이다.

國家 내지 社會 나아가서 國語가 各異(各殊)하다는 생각도 당시에 꽤나 일 반화되었던 것 같다. 俞吉濬은 <西遊見聞序>에서

且宇内の萬邦을環顧^{ᄃᆞ}건디各其邦의言語가殊異^{ᄃᆞ}故로文字가亦從^{ᄃᆞ}야不同^{ᄃᆞ}니蓋言語는人的思慮가聲音으로發音이오文字는人的思慮가形象으로顯^{ᄃᆞ}息이라是以로言語와文字는分^{ᄃᆞ}則二며合^{ᄃᆞ}則一이니我文은……

와 같이 각 나라의 언어가 ‘殊異’하여 이에 따라 만든 문자도 ‘不同’함을 언급 하였는데, 그의 『朝鮮文典』의 서문에서는

蓋聲音은天然의出^{ᄃᆞ}고言語及文字는人爲에屬^{ᄃᆞ}니故로聲音은人物을通^{ᄃᆞ}야皆同^{ᄃᆞ}거니와言語文字가有^{ᄃᆞ}며……是乃吾朝鮮人이亦吾朝鮮人의言語文字가自由息이라

라 하여 ‘天然’의 ‘聲音’과 ‘言語文字’의 ‘自由’를 언급하고 있다.

自強獨立의 개화사상을 지니고 끝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언론인 李鍾一도 <論國文>(1908)에서

環球萬區에各建邦國^{ᄃᆞ}야人文이各殊^{ᄃᆞ}고語音이不同일시隨其方言而皆有文字^{ᄃᆞ}니均是自國之國文이라

고 하였다.

이미 앞에서 인용했던 崔光玉의 ‘國語’에 대한 정의에서도 “世界各國에各異^{ᄃᆞ}한言語가有^{ᄃᆞ}니此를其國國語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言語의 各異性은 自然히 自由=自在=自有=自立=獨立에 통하는 논리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고는 어디에서 왔을까. 18·19세기의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과도 적으로 등장한 민족주의에서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그릇 된 논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언급들이 없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주시경이나 지석영 등은 그들의 國語國文論의 주요 참고

서의 하나가 『訓民正音』(1446)이었는데, 그 정인지의 後序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하곤 하였다.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천지 자연의 소리(聲)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다. (즉 천지 자연의 소리를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물의 정을 통하게 하고, 삼재(三才, 天·地·人)의 도리를 책에 실게 하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성기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말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 가지고 그 쓰임에 통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요는 각각 그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의케 할 것이요, 억지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다.”

— 姜信沆 『訓民正音研究』(1987)의 번역문 참조.

상당히 유사한 논리다. ‘四方風土’가 區區히 다르고 ‘聲氣’ 또한 이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은 중국의 것인데, 주시경 등의 大韓帝國 時期의 주장과 유사한 것은 훈민정음 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사고와 ‘開化(cf.fr.civilisation)’와 같은 서양적인 근대적 사고의 만남이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甲午改革 이후 특히 大韓帝國期의 國語觀은 요컨대 각각의 國家를 전제로 하여 國土, 國民 및 國語의 相關性을 강조하면서 各異性을 강조함으로써 언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language-specific한 것이었으며, 이 언어의 특수성이 天然으로 또는 天命에 의하여 형성되어 각각 그 언어의 自由=自有=自在=自立(獨立)이란 존재의 사고가 나오고 이에 따라 社會=國家=民族의 性인 언어가 국가의 흥망성쇠 또는 보존 발달의 관건이 되므로 언어의 닦음 즉 理言이 愛國心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국어·국문을 정리하고 연구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된 언어로서의 ‘國語’를 연구대상으로 형성된 연구가 곧 近代國語學이라 할 수 있다. 역사학자인 申采浩의 <文法을 宜統—>이란 글도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漢文은 漢文文法이 有ᄃᆞ며 英文은 英文文法이 有ᄃᆞ고 其他俄法德伊等文이 莫不其文法이 自有ᄃᆞ니 目今世界現行各文에 엇지 無法的 文이 是有ᄃᆞ리오

이는 결국 각 나라의 文之法이 있으니 國語도 國文之法의 통일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며, 그 통일된 國文(之)法에 의한 교육은 국민의 단합된 愛國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시경 등은 언어·문자를 중심으로 한 國語觀 내지 國家觀에 입각한 어문민족주의적 애국계몽사상가였다면 申采浩는 歷史 특히 ‘本國政治史’ 중심의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이라면 自有니 固有니 하는 民族 내지 國家의 國粹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고가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가 문을 연 뒤로는 적어도 ‘國語’로는 표출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고가 일시에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해 10월에 崔南善을 중심으로 우리 古典의 再刊과 보급을 주목적으로 세운 朝鮮光文會는 그 설립 취지 속에

今에 我等이 文明上으로 一大 轉機를 會하니 光明을 大放할 好機인 同時에 存喪을 未判할 危機라 如等이 光緒를 繼하며 如何히 來運을 開할가 既往은 湮沒하고 現在는 混沌하고 將來는 茫昧한 此地頭에 大한 覺念과 小한 事力으로 我光文 | 設立하니 修史와 理言과 立學은 實로 그 三大標幟며 ……

『新字典』(1915) 序

라 하여 ‘修史’, ‘理言’ 및 ‘立學’의 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역사와 언어 중심의 사고이기는 하나 그 이전의 사고를 이어받고 있다 할 것이다. 역사의 재인식과 언어의 재발견을 바탕으로 愛國啓蒙의 수단으로서의 실천적 학문을 세우기 위해 朝鮮光文會는 우리 古典을 再刊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갑오개혁 이후 특히 大韓帝國 시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國語觀이 어떠한가를 알아 보았다. 이를 밝혀 보기 위해 그 앞선 시기인 조선시대 특히 『訓民正音』을 중심으로 한 세종의 사람들이 國語를 어찌 생각했는지 검토하고

서 대한제국 시기의 ‘국어, 국문, 국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세종의 사람들이 지녔던 ‘國語’의 개념은 중국어(漢語)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國(人)語 즉 ‘나라(人)말’을 뜻하되 그것은 正音·正聲思想에 따라 아동어나 변방어 등은 제외한 규범적·표준적인 성격의 朝鮮語였던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國語’ 또한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언어’로 나라마다 각각 다른(各異, 各殊) 성격을 지닌 language-specific한 언어관을 지녔으며, 기본적으로는 國文=國之文(國文之法)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동어나 방언 등에 관한 조사 보고나 연구는 없었다. 통일된 표준적인 국어·국문을 연구하고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 교육시킴으로써 단합심·애국심을 고취시키는 愛國啓蒙思想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느 한 나라의 언어’가 ‘국어’였기에 자연히 그 국어를 표기하는 ‘국문’은 자기 나라의 문자일 수밖에 없어 ‘國文專用’의 논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국어국문의 고유성(自由性, 自在性, 自立性, 獨立性)이 강조되고, 다시 이에 따라 고종의 자주독립정신과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國語觀은 周時經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天·地·人 三才에 따라 ① 域(지역공동체)=독립의 基, ② 種(혈연공동체)=독립의 體, ③ 言(언어공동체)=독립의 性의 삼위일체로 형성된 것이 社會=國家=民族이요, 그리하여 國性인 國語가 국가의 흥망성쇠나 보존발달을 결정하는 기관이라 하게 되었기에, 주시경은 국어국문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사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어관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에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18·19세기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민족주의적·정치적 國語觀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국어를 포함한 이른바 ‘國粹’의 강조는 민족과 국가를 혼동하게도 하는데, 민족국가란 근대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막연한 ‘상상의 공동체’이어서 고유성의 지나친 강조는 또 다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스스로를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빠지게 한다. 다행히도 한국의 경우에는 단일민족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은 적은 편이었지 않나 한다. 그러기에 이른바 민족어 중심의 표준어와 표준문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한 계

몽은 긍정적인 면을 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언급되는 ‘國粹思想’에 기울 때에는 자기의 것을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없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진다. ‘國語’를 이데올로기의 근대적 건조물로 만들었던 주시경은 바로 이러한 본보기에 속한다.

我國言語는 …… 其法은 格을 表호는 것이니 世界優等語法에 一也오 我國正音文字는 言語를 記用호라 호는 것이니 世界 最便호 記音文字에 一也라
 <必尙自國文言>(1907)

각 언어가 생길 때부터 각각 다르다고 하고 그 언어에 알맞게 문자를 만들어 역시 各異하고 각각 自立·獨立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주시경이 우리말을 ‘世界優等語法’의 하나라든가 우리글을 ‘世界 最便호 記音文字’라 하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아닐까.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國語’ 運動은 논리적 비약의 상상된 공동체를 전제로 하였다 하더라도 國家語로서의 國語라는 개념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문자체계와 정서법의 재정립 그리고 표준어의 확립과 이들에 의한 사전 편찬이 싹트게 한 동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事情·物情 그리고 새로운 근대사상을 選民이 아니라 萬民에게 전하려는 신문·잡지 등의 새로운 인쇄술은 위의 국어·국문의 정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결과는 엄청난 혁명이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 고 논 저

- 高永根(1979), 『周時經의 文法理論』, 『韓國學報』 17.
 金敏洙(1986), 『周時經研究』, 一潮閣.
 金錫得(1979), 『주시경문법론』, 형설출판사.
 박지홍·허웅(1980), 『주시경선생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
 백두현(2003), 『한국어문(韓國語文) 명칭어의 역사적 변천』(未發表原稿).
 慎鏞厦(1977), 『周時經의 愛國啓蒙思想』, 『韓國社會學研究』 1.

- 李光周(1999), 『민족과 민족문화의 새로운 인식』,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양사학회.
- 李基文(1970), 『開化期 國文研究』, 一潮閣.
- _____ (1972),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 叢書(1977 國語學會 國語學叢書).
- _____ (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學報』 5.
- _____ (1977), 『19세기말의 國文론에 대하여』, 『어문론집(고려대)』 19·20.
- _____ (1981), 『한힌샘의 言語 및 文字理論』, 『語學研究(서울대)』 17-2.
- _____ (1984), 『개화기의 國文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서울대)』 4.
- _____ (1988), 『국어(國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 李秉根(1979), 『주시경의 학문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학보』 16.
- 李秉根(1977), 『最初의 國語辭典 <말모이>』, 『언어』 2-1.
- 李秉根(1978), 『愛國啓蒙主義時代의 國語觀』, 『韓國學報』 12.
- _____ (1979), 『周時經의 言語理論과 訛』, 『國語學』 8.
- _____ (1986), 『開化期의 言語政策과 表記法 問題』, 『국어생활』 4.
- _____ (2001), 『서양인 편찬의 開化期 韓國語 對譯辭典과 近代化』, 『韓國文化(서울대)』 28.
- 이흥식(2000), 『개화기의 國文 관련 논설에 대한 고찰』, 『德成語文學』 10.
- 정승철(2003a), 『주시경의 음학—산재본 <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8.
- _____ (2003b), 『국어문법(주시경)과 English Lessons』, 『국어국문학』 134.
- 曹南鉉(1985), 『한국 개화사상의 단면—『독립신문』의 논설—』, 『전통문화와 서양문화(I)』, 성균관대출판부.
- 허 응(1971), 『주시경선생의 생애와 학문』, 『東方學志』 12.

<Abstract>

The Concept of Guk-eo(國語, National Language) and Modern Korean Linguistics

Lee, Pyonggeun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Guk-eo(國語, National Language)’, especially the view of ‘Guk-eo’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Korean linguistics in the period of Daehan Jeguk(The Great Han Empire).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in Hunmin Jeongeum(訓民正音,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el), ‘Guk-eo’ meant the prescriptive language of the nation, Chosun, excluding either child language or dialects. Such prescriptiveness was based on the notion of Jeongeum(正音, correct sounds).

After eighteen-nineties, the concept of ‘Guk-eo’ changed into implying the language of a country, that is, a national language, mainly grounded on nationalism and the idea of patriotic enlightenment, even though it was still prescriptive. The notion of ‘Guk-mun(國文, National Writings)’ was in pallel with it.

‘Guk-eo · Guk-mun’ in this period, closely related to a nation or an ethnos(a race), emphasized identity and independency in agreement to the spirit of sovereign independence of the government. The supporting view of national language, especially Ju Sigyeong’s view was that Korea, Korean people, and Korean language were regarded as a single bundle, since a

nation, a race, and a society was rooted from an identical concept in his view, which represented a regional community, a blood community, and a speech community, respectively. He conducted research on Korean language, based on the view that Guk-eo, as Guk-seong(國性, nationality),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Key Words : Guk-eo(國語, National Language), nationalism, the idea of patriotic enlightenment, Guk-mun(國文, National Writings)